



2023년 4월 28일 | Equity Research

글로벌 인터넷

미국 빅테크 3사 모두 실적 서프

미국 빅테크 3사 모두 실적 서프

금주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 MS는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7% 상승하며 YTD로 23% 상승했으며, 메타는 시간외에서 16% 상승하며 연초 대비 수익률이 60%를 넘었다. MS는 전 사업부문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사업부인 Azure의 2분기 성장률 가이드언스를 26~27%로 제시함에 따라 하향 안정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이 처음으로 흑자전환했으나, 장비 감가상각 연수를 6년으로 늘린 효과를 제외하면 아직 영업적으로는 적자로 추정한다. 메타는 역기저로 인해 지난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시현했으나, 1분기 성장으로 전환했다. 알파벳과 메타의 구조조정은 지속되고 있으며 1분기 각각 26억 달러, 11억 달러의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

글로벌 광고 시장 현황

글로벌 광고 시장은 더디지만 회복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광고와 메타의 광고 매출은 작년 4분기 모두 역성장을 시현했으나, 1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은 역성장을 지속했지만, 검색광고 매출은 연간으로 2% 성장했으며, 유튜브 매출 또한 환율 효과를 제외할 경우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메타는 1분기 광고 ARPU가 글로벌 전지역에서 고루 상승함에 따라 연간으로 4% 성장했다. MS의 핵심 사업부는 아니지만 링크드인과 검색/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각각 8%, 10% 성장하며 견조한 실적을 시현했다.

한국 인터넷 기업에의 함의

글로벌 광고 시장의 회복은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좋은 시그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익은 광고/커머스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구글의 검색광고, 메타의 광고 매출 성장세가 중요하다. 빅테크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처럼 대규모는 불가능하나, 이익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 감축 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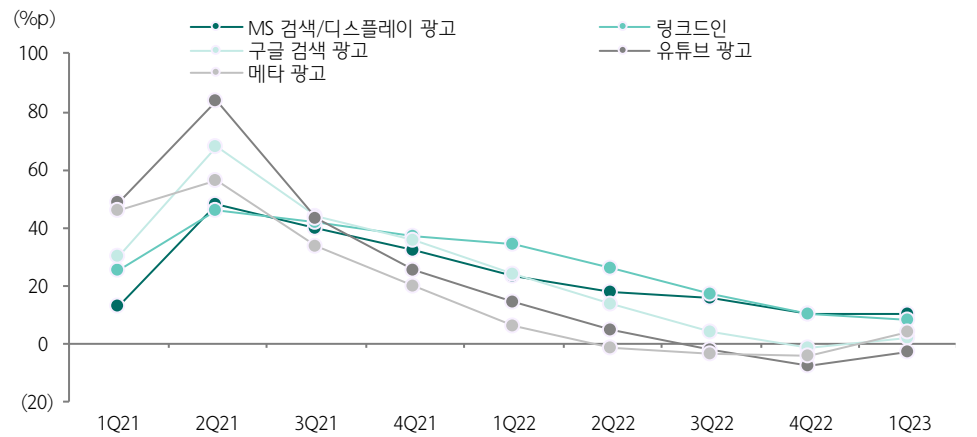
Overweight

Analyst 윤예지

02-3771-3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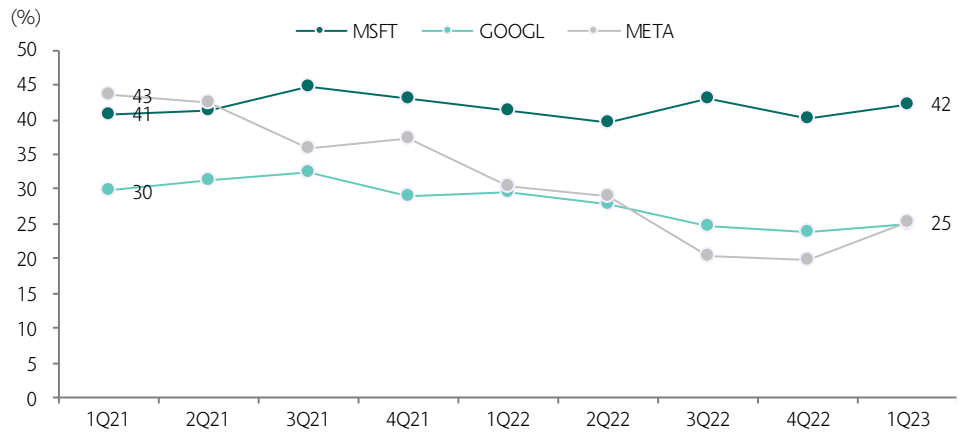
yj.yoon@hanafn.com

그림 1. 빅테크 3사 광고 관련 사업부 YoY 성장률 추이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하나증권

그림 2. 빅테크 3사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하나증권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49%	5.51%	0.00%	100%

* 기준일: 2023년 4월 16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윤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3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윤예지)는 2023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